

-(으)ㄴ에 있어

~하는 데 있어, ~에 관해서라면

진술이 다루는 활동의 범위를 설정합니다. 격식 있는 한국어에서 매우 흔하게 쓰이지만, 국어 문체 지침에서 적극적으로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하는 몇 안 되는 구문이기도 합니다.

■ 결합 방법

상황	형태	예
모든 명사	-에 있어	교육에 있어
긴 형태	-에 있어서	협상에 있어서
절 뒤	-(으)ㄴ에 있어	판단함에 있어
ㄹ로 끝나는 경우	ㄹ + ㄴ	만들다 → 만듦에 있어
더 평이한 대안	-(으)ㄴ 때, -는 데	판단할 때
문체 참고	아껴 쓰기	지침상 남용 표현

■ 언제 쓰나요

명사에는 바로 붙습니다: 교육에 있어, 협상에 있어. 절에는 먼저 -(으)ㄴ으로 명사형을 만들며, 이때 ㄹ은 유지합니다: 만듦에 있어. 더 긴 형태인 에 있어서도 똑같이 흔히 쓰입니다.

주장이 적용되는 영역을 설정합니다: 사안을 판단함에 있어 신중해야 한다.

이제 주의할 점입니다. 국어 문체 지침에서는 에 있어서를 남용되는 외래 표현으로 보는데, 일본어 における를 본뜬 것이라 하여 다른 말로 바꿔 쓰기를 권합니다. 판단할 때 또는 간단한 -는 데 같은 표현을 쓰면 대개 같은 뜻을 더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.

공문서에서 끊임없이 마주치므로 알아 둘 가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모두가 권고받는 바로 그 이유로, 되도록 아껴 쓰는 것이 좋습니다.

■ 예문

- 1 사안을 판단함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.
- 2 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다.
- 3 협상에 있어서 신뢰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.
- 4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현장의 의견을 반영했다.
- 5 부품을 직접 만듦에 있어 품질 관리가 관건이다.
- 6 기준을 마련함에 있어 형평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.

■ 비교

-(으)ㄴ 때

더 평이한 대안이며 대개 더 나은 선택입니다. 문체 지침에서는 에 있어를 쓸 수 있는 자리라면 어디서든 이것을 권합니다.

판단함에 있어 신중해야 한다. (격식체) / 판단할 때 신중해야 한다. (자연스러움)

-(으)ㄴ/는 데 있다

모양은 비슷하지만 역할이 다릅니다. 데 있다는 어떤 것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짚고, 에 있어는 단지 영역을 설정할 뿐입니다.

문제는 준비가 부족한 데 있다. (문제가 거기에 있다) / 판단함에 있어 신중해야 한다. (판단할 때)

-(으)ㄴ에 따라

같은 -(으)ㄴ 계열로, ㄹ 함정도 같습니다: 만들. 따라는 비례를, 있어는 영역을 나타냅니다.

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(소득이 늘면서) / 판단함에 있어 (판단할 때)

■ 주의

- ✗ 부품을 직접 만듦에 있어 품질이 관건이다.
 - 부품을 직접 만듦에 있어 품질이 관건이다.
 - ㄹ 어간은 ㄹ을 유지하고 ㄴ을 더해 만듦이 아니라 만듦이 됩니다.
 - ✗ 사안을 판단하에 있어 신중해야 한다.
 - 사안을 판단함에 있어 신중해야 한다.
 - 절은 먼저 -(으)ㄴ으로 명사형을 만들어야 합니다.
 - ✗ 밥을 먹음에 있어 손을 씻어야 한다.
 - 밥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한다.
- 이 표현은 격식 있는 논의의 영역을 설정합니다. 일상적인 행동에 쓰면 패러디처럼 들립니다.